

의료의 '사회적責務' 되새길 때



글·**임형균** |
조선일보 의료건강팀 기자

필자는 일간 신문에서 의학담당 기자로 있으면서 주로 병원과 의사를 취재원으로 삼다보니, '일반인'치고는 의사를 꽤 많이 만나는 편이다. 그래서 의사들과 식사를 할 기회도 있고, 가끔은 술도 마신다. 그런데 취재 때문에 만나건, 공식적인 일을 떠나 사적으로 만나건 의사들로부터 듣는 말의 주제가 너무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곤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적지 않다. 특히 병원에서 원장이나 과장, 의과대학의 교수 등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요약하면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이다.' '우리 사회는 의료문제의 책임을 의사들에게만 떠넘긴다'

는 것이다. 병원협회나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기자를 만나면 의료수가 문제를 적극 얘기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생길 정도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기자가 만난 많은 의료계 인사들은 대의(大義)를 위해 참으로 애를 많이 쓰는 분들이다.

'수가왜곡' 만이 의료문제의 根原因가

말문이 터지기만 하면 얘기는 끝이 없다. 특히 기자들과 만난 경험이 적은 의사들은 마주 앉자마자 아주 기초적인 '개론'부터 시작해 '각론'까

지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 말투는 정중하지만, 그 내용은 '당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의료수가가 엄청나게 왜곡돼 있으며, 그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거듭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의료계로서는 그것이 참 절실한 내용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됐고, 기회가 있을 때 기사에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속된 표현으로 듣기 좋은 노래도 한 두 번이라고 했듯, 이제는 참으로 미안하지만 식상해졌다. 다른 말로 하자면 좀더 진일보한 다른 내용도 듣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해묵은 숙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이란 뜻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 그 주제는 알 만한 사람들은 어지간히 안다. 그럼에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잘 잡히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수가 문제'라는 인식을 굳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심어주어야 할까. 이제는 전략을 좀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좋은 약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듯이, 명분이 뚜렷하고 꼭 해야 할 말도 간혹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한번쯤 생각 해볼 때가 됐다고 얘기하고 싶다.

얼마 전 마감한 2004년 레지던트 선발 시험의 원서접수 결과, 인기과의 경쟁은 여전했고 비인기과는 예년보다는 상황이 호전됐지만 여전히 외면 당했다. 필자도 '칼을 잡지 않는 의사들'이란 시리즈 기사를 통해 왜곡된 수가 등의 영향으로 전문의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전공의 인력 수급, 응급실의 문제점, 만성적인 병실 부족 등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 원인을 파고 들

어가 보면 결국은 '왜곡된 의료수가'로 수렴된다. 상당 부분 맞다.

그러나 이런 현실의 모든 원인이 의료수가라는 '외부요인'에만 있는가 묻고 싶다. 의료계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그 책임의 대부분을 잘못된 보험수가 체제로 돌리는 듯한 자세는 의료계 밖에서 별로 공감을 못 얻고 있다.

의료계 '안'을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내부의 문제도 드러내 보였으면 한다. 예를 들면 대학 병원장들이 재임 중에 잘 지내기 위해 노조 등과 타협하던 관행이 누적돼 병원의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은 없는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의료계 사회적 책무 재고할때

의료계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해볼 만하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찾았던 싱가포르 래플즈병원의 루춘용 원장은 이런 말을 했다.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면 우수한 인재들이 의과대학으로 자꾸 몰려 공학이나 기초과학 등으로 가지 않는다. 국가의 앞날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의료계가 나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반대했다.”

루 원장의 말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며, 싱가포르의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그의 접근 방법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공계 위기는 한국 사회에서도 주요 이슈 중의 하나다. 심지어 모 명문대학 생물학과에서는 한 학년생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을 가

겠다고 해서 교수들이 “앞으로 의사 제자들이 많아지면 늙어서 병원갈 때 좋겠다”는 한탄섞인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라고 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의료계에서는 별 말이 없다. 학생들이 스스로 의사가 되겠다는데 의료계가 어떻게 말리겠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별 말이 없다.

의료계 바라보는 사회의 냉랭한 시선, 개인식을

개인적으로 의사들을 만나면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대거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얘기를 흔히 듣는다. 그런데도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차원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 의사들이 곧바로 사회에서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 공계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의대-한의대로 우수 학생들이 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가 진심으로 개선책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좀 황당한 얘기지만 의료계가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이라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의료계의 많은 사람들이 “의료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의대 정원부터 전문의 수급, 소위 비인기과와 인기과의 불균형 등 크고 작은 의료계의 문제점 모두를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의료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개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에나 있다.

일방적인 국가 개입에 앞서 의료계가 내부의

뜻을 모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대안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 내놓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의학담당 기자로서 신문사 안에서나 밖에서, 또는 기사를 통해 의료계의 실정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당신은 의사들만 만나고 다녀 시각이 너무 의료계로 기울어 있다”는 비판을 자주 듣는다. 의사를 편든다는 것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있는 의학담당 기자의 의견에 대한 반응이 이 정도이니, 의사들이 직접 내놓는 주장에 대한 밖의 시선은 어떨까. 밖에서 의료계를 보는 시선은 아직도 냉랭하다.  2004